

## 10. 제자 파송, 오병이어 (6:1-44)

### A. 제자 파송과 요한의 죽음 (막 3:13-19; 6:7-13)

- ◆ 예수를 배척(3:1-6; 20-35; 6:1-6)=> “마리아의 아들” vs 다윗의 자손(마 1:16) 혹은 “요셉의 아들”(눅 4:22; 요 1:45; **6:42**)=> 막 3:31-35
- ◆ 번역상 문제점(6:2)=> “어찌하여” (개역); “어떻게” (표준새번역): 원천/신학의 문제가 아니라, (천한) 예수가 문제.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예수에게... (놀라운/훌륭한 가르침은 인정한다고?)
  - 어디서? => 보다 근본적인 질문: From where these things [came] to this man?=>1:10(from heavens/God). "하늘로서냐, 사람으로서냐"(11:30)
  - 무엇이뇨?=>보다 근본적인 문제 (what kind of wisdom/teaching/theology is that? 이단적 교훈?) => 1:22 그레야, 배척(개역)/꺼려함(새번역)/밧지 았음(공동번역)
- ◆ 제자(여기서는 단순히 “The Twelve”)는 예수의 일을 계승 (3:14-15)=> “더러운 영/귀신을 제어하는 권세”(6:7)=> 예수의 유일한 가르침
  - “회개하라”(6:12)=> 1:12 [예수의 행적을 따라감=> "갈릴리로 가라"의 의미]
  - 신학 다시하기: i) 자신—마가공동체—들의 신학을 변명; ii) 소위 “열 두”사도들에게 일침
- ◆ “더러운 귀신”이란? => (상반되는 말/개념은?) => 깨끗한 귀신/영(靈, πνεῦμα). 더러운 영//타락한 영/귀신들림(possession)=> 지배신학에 물들음(internalization of that oppressive ideology/theology)
- ◆ 전도방식(?)의 차이. 가가호호 방문(soliciting)?=> cf. 막 6:11 지배와 정복(세력확장)이 아닌, influencing, 삶의 모범(witnessing 막 1:38)

### B. 부활—누가?

- Sandwich technique(3:22-30; 5:21-43; 6:6b-29; 11:12-25; 14:1-11; 14:53-72)=> 문학적 기법으로 어떤 플롯을 암시. 여기서는 retrospectively=> 부활; prospectively=> 오병이어; ① 부활: 요한/예수의 말/사상의 재현; ② 2 개의 잔치: 살생(헤롯당) 혹은 양생(예수당)
- 14 이에 그의<sup>i</sup> 이름이 드러나니 헤롯왕이 들은지라 어떤이들이<sup>ii</sup>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15 어떤이들은 이가 엘리야라 하고... (AWP)
- “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”=> “그의 이름이 드러난지라” (Q: “예수의” 혹은 “요한의” both?)
- 결국 부활은 문자적으로 죽은 자의 다시 삶—시체가 벌떡 일어나 걸어다님(마 28:52-53)—을 경험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죽은 자/앞서 산 자(先生)의 삶/철학/가르침이 제자들/추종자들에게 되살아나 운동하는 것을 경험.
- 우리들의 “부활신앙”은? (보다 중요한 질문: 그 “부활신앙”이 내게/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?). Cf. 요 11:24 (마르다 부활신앙=> 나중에) vs. 요 11: 25-26 (예수의 부활신앙=> 지금, 여기서)
- 헤롯당의 만찬/신학=> 세례 요한을 죽임; 오병이어 (신학적 의미)=> 많은 사람을 살림
- 음식 먹을 “좋은 기회” (6:21 vs. 6:31 겨들=> 좋은 시간)

### C. 오병이어: 잔치

- ◆ 새 이스라엘 건설: Restoration Movement
  - 모세의 일 재현: military formation (출 18:21=> 막 6:40); 12 바구니=> 12 부족. 새로운 이스라엘, 공동체 형성.
  - “목자 없는 양”=> 민 27:12-23 (지도자 부재=> 신학의 부재)
- ◆ 어떻게 이해할까?/신학 하기—
  - 1) 기적(예수의 신성), Cf. 예언자(엘리사)의 일 재현: 열왕기하 4:42-44
  - 2) sharing/communion/서로 나누기(도덕적 교훈),
  - 3) 신학 다시하기. 떡=>말씀. 그 말씀/신학에 참여와 나눔. Cf. “바리새인의 누룩, 헤롯의 누룩”(막 8:15)
- ◆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신학적 입장을 구약의 전통에 입각하여 기술
  - 당시 가버나움 인구 2-3천 ["청년예수의 고뇌와 사명감" 자료에 의하면, 1500명 정도=> 남자만

- 5000명?)
- 만나(출애굽기 16장), 새로운 지도자(민 27:17); 엘리사 이야기 (왕하 4:42-44)
  - 특히 엘리사 이야기와의 공통성: 엘리야/세례요한의 죽음(); 소량의 빵으로 다수를 먹이고도 남음 => 나보다 강한 자(막 1:8)=> “more than a prophet”(마 11:9)
  - ◆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=> 너희가 가진 것은? (신학은?=> 그냥 지나가려고 하실 새 [6:48]=> 왜?)
  - ◆ 떼를 지어 (vv. 39-40; symposia, prasia)
    - 잔치: *symposia* (συμπόσιον << συμπίνω, “drink together”=>banquet, festive drinking party). *prasia* (πρασιά): 후기 랍비문학에서 토라 연구를 뜻함(Boring, 186), *anapipto* (ἀναπίπτω; recline as a festive meal, not a normal posture at table)
    -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? (=>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)

**Reflections:**

1. 예수의 삶/부활 어떤 모습에서 [우리가] 신을 경험, 만났다고 말할 수 있나=> 지금 우리의 말로는?
2. Jairus' Daughter and the Woman with a Hemorrhage (12years) +오병이어=> 유대 상황 (이방인 상황은, 다음주에)
3. 헤롯왕의 잔치(Closed membership)와 예수의 그것은(Open table) 많은 다른 면을 보여준다. 무엇이 다를까?

밥 / 김지하.

밥이 하늘입니다.  
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 
밥은 서로 나눠먹는 것

밥이 하늘입니다.  
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 
밥은 여럿이 갈라먹는 것

밥이 하늘입니다.  
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 
하늘을 몸 속에 모시는 것

밥이 하늘입니다.  
아아, 밥은 모두 서로 나눠먹는 것

<sup>i</sup> “예수의”

<sup>ii</sup> “헤롯왕이 듣고 가로대” => 본문(Nestle-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판)에 의하면, 주어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으며 세 부류의 “어떤 이들”의 의견을 나열하고 있다. 한글번역본은 아마도 마 14:1-2을 참조한 듯하다.